

2019. 8. 2



▲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 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Overweight

자동차

일본 수출규제 영향 점검

- ✓ 자동차 부품 일본 의존도 제한적이며, 대부분 재고 소진 전 대체 가능
- ✓ 친환경차 부품 및 생산설비 기계/로봇에 대해서는 단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 존재하나, 공급처 다변화 진행 및 우회 수입을 통해 해결 가능
- ✓ 일본산 부품 및 기계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재고 확보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즉시적 영향 부재. 일부 품목에 대해 단기 영향 존재하나, 지속가능성 제한적

자동차 부품 일본 의존도 제한적이며, 대부분 재고 소진 전 대체 가능

18년 기준 현대/기아차 및 1-6차 부품업체의 합산 매출원가 중 일본산 부품 매입 규모는 9,000억원대로 전체의 0.5% 이하. 이 중 즉시 대체가 어려운 부품 비중은 40% 수준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 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생산차질 경험에 근거해 6-9개월 재고 보유. 차량용 반도체/변속기 부품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부품을 포함해 대부분 부품이 2개 이상의 업체에 대한 멀티밴더 납품구조. 동일설계 제품에 대한 타 밴더로의 생산이전 가능.

친환경차 부품 및 생산설비 기계에 대한 우려는 존재

친환경차 부품 (BEV 바인더/ 알루미늄 파우치, FCEV 탄소섬유)에 대해서는 조달 우려 존재. 친환경차 부품은 즉시 대체 불가능하며, 배터리 공급처 다변화 및 소재 개발 기간이 필요해 1-2년 이상 생산차질 가능. 다만, 이 같은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 친환경차 생산라인에 대한 밴더 다변화 이미 진행 중..

NC 컨트롤러 글로벌 점유율 1위인 Fanuc 등 일본업체로부터의 로봇, 공작기계 부품 조달 우려 또한 존재. 공작기계의 경우 전용기와 범용기로 구분되며, 완성차는 전용기 (한 종류만 가공)만 사용하며 부품업체가 범용기 (다종 가공)를 주로 사용. 현대/기아차 생산공정 내 전용기는 100% 독일 Siemens 기반으로 영향 없음 (신형 엔진/변속기 이상무). 조립라인에 Kawasaki 로봇이 있으나, 이는 독일 ABB나 현대 로보틱스로 대체 가능. 다만, 부품업체들이 사용하는 범용기는 대부분 Fanuc 기반. 그러나 문제가 될 경우, Fanuc의 NC Controller를 적용한 해외 공작기계 제조업체로부터 매입 가능. 장기적으로는 Siemens의 NC Controller 기반 공작기계 사용 교육을 강화해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매입 가능.

일본 수출규제 일시적 영향 가능하나, 구조적 우려는 아니라고 판단

일본산 부품 및 기계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재고 확보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즉시적 영향은 부재할 전망. 사태 장기화 시, 일부 품목에 대해서 단기적 영향 존재하나, 지속적인 우려요인으로 남을 가능성 또한 제한적이라고 판단.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8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8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8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준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2016년 11월 7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

기업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종가대비 4등급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이상
	Trading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5% 이상 ~ +20% 미만
	Hold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이상 ~ +5% 미만
	Sell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미만
산업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	
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등급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의견 비율

투자의견	비율
매수	97.0%
중립	3.0%
매도	0.0%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